

불교계 언론 온라인서비스 “UP”



동영상, PDF 등 고급 콘텐츠 제공 다양한 서비스로 신형 · 포교 길잡이

가막혀’, 만화가 한정우씨의 ‘아합경에서 건지는 지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불자네트즌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포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을 가칭취권으로 하고 있는 불교방송(www.bbsfm.com)은 프로그램 소개, BBS뉴스, 음악자료실, 청취자 게시판 등의 코너에서 불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나간 방송을 불자들이 언제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VOD서비스 코너를 신설, 조만간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케이بل 채널 32에서 영상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불교텔레비전(www.btni.co.kr)은 매일 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불자들에게 제공하고 만불신문(www.manbulshinmun.com)도 최근 PDF 서비스를 실시,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신문을 판형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불교신문, 법보신문, 불교정보센터 등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불교소식을 전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최근 불교계 인터넷 언론이 기사와 동영상, PDF, 실시간 방송 등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며 불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불교계 뉴스사이트로 독보적인 자리를 지켜온 인터넷 일간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는 20여명의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뉴스들을 현장감 넘치는 기사 또는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매일 업데이트해 불자들의 관심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또한 크스님 음성법문, 각종 커뮤니티와 주목받는 인물 인터뷰, 성태용 교수의 ‘순오공이 기

고 있어 불자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친근한 사이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취재기자들마다 개인 커뮤니티를 운영, 취재자료 뿐만 아니라 네티즌과 1:1 만남이 가능한 현대불교신문을 판형 그대로 볼 수 있는 PDF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어 법향이 가득한 ‘사이버 법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오픈한 인터넷 포교방송 붓다TV(www.buddhatv.com)는 설법, 포교, 문화, 교육 등 4개 채널을 운영한다. 붓다TV는 이 채널을 통해 찬불가 뮤직비디오, 영화전론 부다시네, 청소년 음악프로그램 락엔락, 어린이 구연동화, 기타 초심자와 중급자를 위한 불교강좌 등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게시판 연보기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경 국가의 중추신경망인 유무선 인터넷 접속이 9시간동안 한꺼번에 중단되는 ‘인터넷 대란’이 발생했다.

이번 인터넷 접속 중단 사태는 신종 웜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PC방, 인터넷 소핑몰, 온라인 게임업체 등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사고 방지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www.microsoft.co.kr)의 데이터 베이스 서버 프로그램인 ‘SQL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보안 패치파일 설치, 안철수연구소(www.ahnlab.co.kr) 등 보안회사 홈페이지에서 전용백신을 다운받아 바이러스 검사 등 국민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각종 사이트 게시판에서는 이번 사태

9시간 인터넷 대란, ‘보안 후진국’

를 보안의식 부재가 부른 인재라며 항의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젠 MS를 버릴때가 되었습니다. MS

우선 서버들부터 UNIX, LINUX로 모두 교체합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서버들, PC들을 모두 리눅스 계열로 바꾸고 국내 벤처나 IT사업자들을 리눅

바이러스 원인, 쇼핑몰·게임업체 타격 정통부 백신설치 등 행동요령 발표 ‘인재’ 재발 않도록 철저한 대비 필요

사가 태동한 미국에서조차 MS를 분할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우리나라는 100%의 PC가 MS 제품을 쓰고, 서버의 대부분이 MS-SQL서버를 이용합니다.

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오피스같은 사무환경 소프트웨어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인터넷대란은 인재다.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서로 떠넘기지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원인규명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해야할 것이다.

lee03140, 네이버

정통부란 곳이 정보 통신에 정통해야 하는데 정통하지 않고 소름 하나 이 모양이 아닌가. 앞으로 정통 하고 대통한 정통부가 되길 바란다.

아무개, 정통부 게시판

평일 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일이다. 전문가란 놈들이 어제 하루종일 해킹어찌고 하더니 결론이 바이러스라니. 보안의식이 그렇게도 없고, 대처가 이렇게 늦어서야. 앞으로가 더 걱정되네.

sam03ss, 엠팩스

IT다산

앙골렘만화페스티벌 폐막 한국전, 해외인론 격찬

세계최대 규모의 만화 축제인 ‘2003 앙골렘국제만화페스티벌’이 1월 23일~26일 프랑스 앙골렘에서 개최됐다. 30년 전

통의 이번 만화페스티벌은 전세계 900여명의 작가를 포함해 총 5800여명 이상의 만화관계자를 비롯해 20여만명의 방문객들이 행사장을 찾아 축제를 만끽했다.

이번 행사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프로그램은 한국만화특별전, 역사전, 작가전, 모바일 만화전, 학생만화전으로 구성된 한국만화특별전에서는 총 100여편의 만화를 4컷에서 8컷의 형식으로 구성해 휴대폰이나 웹, PDA 등으로 서

비스하는 것을 시연해 해외유수언론의 격찬을 받았다.

스팸대응센터 개설 교육·홍보 집중 실시 예정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조휘갑)은 최근 스팸메일이 급격히 증가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팸관련 상담 및 민원처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

기 위한 ‘불법스팸 대응센터’를 1월 24일 개설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스팸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사업자 및 네티즌들이 스팸메일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스팸메일 피해구제 및 상담 등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www.spamco.or.kr, 02-405-4770)로 연락하면 된다.

우리절 Digital-cyber 불사

동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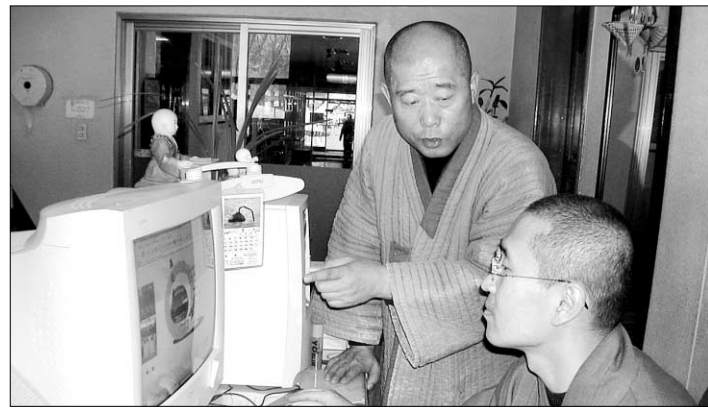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년전 인도 영취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법화경을 설하실때의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 영상산재. 동원사 홈페이지(www.bongwon.temple.or.kr)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된 이 영상산재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영상산재에 대한 개괄적 설명, 영상산재 공연 의식과 식당 작법, 영상산재 보존회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2002 한일 월드컵 성공 및 세계평화기원 영상산재 상설공연 내용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어, 중국어로 웹페이지를 만들어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법음대학 등 다양한 코너들이 마련돼 불교사의 진면목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단지 마우스 클릭 몇 번 만으로도 금방 알 수 있다.

동원사는 1천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젊고 활기찬 신세대 사찰이라 불릴 정도로 디지털 불사를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산담당 광호스님을 비롯해 30~40대 젊은 스님을 중심으로 사찰종무전신화, 영상산재 관련 자료 DB화 등 정보사회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찰종무행정 의 경우 정보화 마인드가 전혀 없었던 10년 전 이미 몇백만원대의 종무관리 프로그램을 구입, DM발송과 신도들의 인적사항, 인등비 등 재정적 부분까지 전산화 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최신 전산 장비를 구입해 사중에서 보관해온 영상산재 관련 500여

영상산재 DB화, 다국어 제공 눈길

첨단장비 이용 불교문화 전산화 계획



◊전산담당 광호스님과 종무 일운스님이 홈페이지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대 많은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로널(44)씨는 “동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산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그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불교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영상산재를 통해 한국불교의 단면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동원사 홈페이지에는 사중에서 매일 발행되는 <월간 불원사보>의 모든 내용이 DB로 분류되어 있다. 또 불원사 부설

개의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중에 있고 바라춤, 법고 등 불교문화관련 내용도 전산화를 통해 영구보존할 계획이다.

종무 일운스님은 “신세대 스님들을 중심으로 개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메일을 서로 교환하는 등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인터넷 포교를 불원사 중점사업으로 추진, 청소년 포교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r.co.kr E-mail: bokbat@kornet.net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식(자연의식)의 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 명상최면으로 하는 재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 전생태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 원격재령 명상최면 - 제 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원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 실시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령** **초상령** **빙의령** **속생령** 천도 및 재령
- 적용대상: 스님, 의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수시접수

“단 한번 ‘명상 최면’으로 어린이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해결”

2002년 12월 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국제신문 12월 21일자 29면

부산일보 12월 21일자 30면

동아일보 12월 23일자 A 29면 보도>을 해결하는데 ‘명상최면’을 통하여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어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목격자가 최면상태에서 한번도 보지 않은 범인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렸다는데 있다. 최면상태에서 피술자는 범인의 양쪽귀(耳)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얼굴의 흉터와 얼굴 반쪽이 일그러진 것까지 뚜렷이 떠올렸다. 이런 초월적 현상은 일반 최면과 다른 명상최면으로 가능한 일이다.